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때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 (마 9:14-17)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마음껏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할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도 금식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14절).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슬픔으로 금식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먹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15절).

유대교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금식기도를 자주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곧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금식이나 기도는 물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섬김의 마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16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17절).

여기서 생베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유대인의 전통과도 같은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쁨과 소망과 부활과 능력과 승리의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할 때도 기쁨으로, 새벽제단을 쌓을 때도 기쁨으로, 구제를 할 때에도 기쁨으로,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여 그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기쁨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 Wise Saint Who Knows Times (Matt. 9:14-17)

The trait of Christianity is grace. There is only the Christian religion which gives a grace until it overflows, to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receive it, do not reach the standard of it, and are impossible to pay it back. Those who received God's grace are always full of joy.

Jesus said that we should always be joyful. Though we go through anxious and difficult works and sufferings, while living in this world, Jesus says that He gives us the joy that we can go through such things.

What can be changeable and unchangeable

John's disciples asked Jesus, "How is it that we and the Pharisees fast, but your disciples do not fast?"(v.14). Jesus answers there are times that we sorrowfully fast when we lead a faithful life accompanied by Jesus, and we joyfully have dinner (v. 15).

The Jews who were faithful to the Jewish religion often fasted. The fact that they prayed and fasted made a pious standard. Their religious action was just the criterion of religious faith.

Of course, fasting and prayer are beautiful things. However, while we cannot overcome our love by overflowing it, what we can sing is also a beautiful thing. Even though our appearance can be changed into this way or another, our love, belief, and service for God can never be changed. We should distinguish what is changeable from what is not changeable.

Jesus explains the two parables in the following:

"No one sews a patch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for the patch pull away from the garment, making the tear worse" (v.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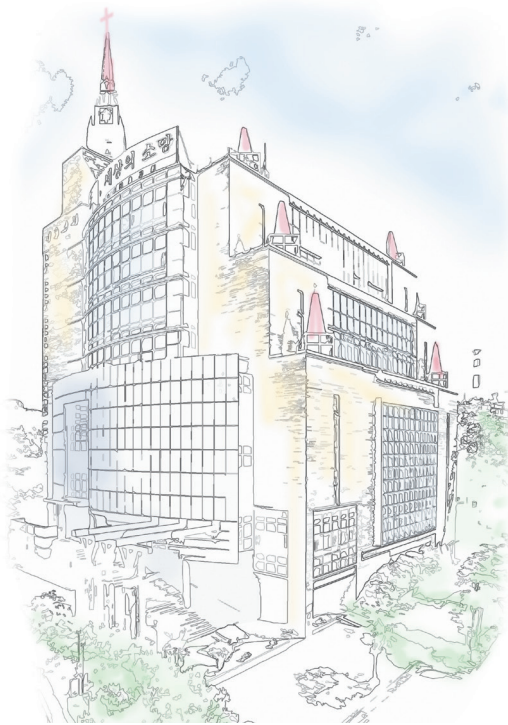
"Neither do men pour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they do, the skins will burst, the wine will run out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they 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s, and both are preserved" (v.17).

Here, the unshrunk cloth and new wine means the Gospel. Jesus says that the Gospel can never put in an old cloth or an old wineskin just like the old Jewish traditional religion.

If so, we must prepare new wineskin in order to fill the new wine of joy, desire, resurrection, power, and victory until it overflows.

My beloved Christians!

With joy whenever we pray, build a dawn altar, give aid, and serve the church, I sincerely pray that whoever will inhale the fragrance of joy in the church will receive Jesus fragran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중에 진행

2013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금주는 교육1국(국장 : 이갑진 장로) 유아부 ·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와 교육2국(최양진 장로) 중등부 · 고등부와 교육3국(국장 : 이강진 장로) 디아스포라부의 수련회가 별표와 같이 진행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쉼을 얻는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유아부	7.26(금)~28(주일)	서울교회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GO! GO!(마25:40, 레19:18)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유년부			Jesus Festival
초등부	7.22(월)~23(화)	아가페타운	예수님이 먼저 보여 주셨어요
중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고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만 남
청년2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청년3부	8.15(목)~16(금)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디아스포라부	7.27(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에바다부	7.29(월)~31(수)	아가페타운	작은 자들의 친구
신혼가정부	8.23(금)~24(토)	아가페타운	부부, 평생의 친구

2013년 3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산양위원회〉

- 가브리엘 : 정미량, 이종훈2, 주현민
- 할렐루야 : 양영순, 문한식, 최창구, 백성흠
- 임마누엘 : 서정선, 신혜진2, 서민애
- 예루살렘 : 강은정2, 박창호, 기형주
- 호 산 나 : 박명애, 송영선, 신금대, 안현남, 이경혜1
- 시 온 : 고정례, 홍영미, 김윤정9
- 은 빛 : 류장열
- 아멘관현악단 : 구희원, 박성수, 양준영, 이춘석

- 유년부(2부) : 박찬미, 손영희, 유경은, 이영신, 이지혜6, 이진영3, 임승한, 정혜승, 진현정1
- 초 등 부 : 우선경, 이신원1, 이예원, 제연주
- 고 등 부 : 이호준1
- 소 망 부 : 안병숙
- 새가족부 : 고윤상

〈교구위원회〉

- 1-7 다락방장 : 송연실
- 1-9 부다락방장 : 양미경
- 6교구 간사 : 옥종호
- 11-13 다락방장 최현인

〈교육위원회〉

- 유 치 부 : 김유진1, 정효진1

전반기 회계 감사 실시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2013년 전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찬양대, 교회학교 등 각 해당부서 회계 담당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7월21일(주)까지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다락방리더훈련 종강 / 다락방 방학

상반기 다락방리더 훈련이 7월 24일(수)에 종강한다. 개강은 8월 28일(수)이다.

또한 휴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방학한다.

사랑의 대잔치

지난 20일(토)에 스테반회(회장 : 김광룡 집사)는 교회와 교회 주변에 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사랑의 대잔치'를 열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6)

(문 95)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의 죄값으로 밧세바의 첫아들을 쳐서 죽이셨습니까?

(답)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심오한 진리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공포의 위협, 무서운 저주, 마지막 심판의 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 즉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경외심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인간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너머의 세계, 즉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 했습니다. 영생이나 영벌의 세계는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선택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요 11:26). 따라서 죽음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딤후 1:10) 사망의 썩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은 무력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고전 15:54-56) 따라서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계 14:13)라고 했습니다.

유아기에 죽는 이들의 경우 그들은 이 세상 비극 실연 아픔의 생애에서 떼어 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죽는 이들은 인간편의 신앙적 책임 없이 갈보리의 효험을 전가 받아 구원을 보장받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아 사망은 대개 하나님의 저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레 18:21, 신 12:31, 대하 28:3, 사 57:5, 렘 19:4-7)

출생 시 죽었거나 그 전에 죽는 아이들의 경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가 믿었던 안 믿었던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 열매가 없었지만 위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아이를 양도하고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삼하 12:23)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만족하고 왜 죄의 열매를 거두어 가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비록 회개한 다윗이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의식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3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초대

우리 여름성경학교·수련회 하요

모여라! 고등부!

언제? 7.25(목)~27(토)
어디서? 아가페 타운
"만남"이란 주제로 모입니다!

초등부!

언제? 7.22(월)~23(화)
어디서? 아가페 타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유아부

언제?
7.26일(금)~28일(주)
어디서? -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GO! GO!"



중등부?

언제? 7.25일(목)~27일(토)
어디서? - 아가페타운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유년부

언제? 7.26일(금)~28일(주)
어디서? - 교회에서
"Jesus Festival"

유치부

언제?
7.26일(금)~28일(주)
어디서? -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2013 여름 수련회 초대 -디아스포라부

이 땅에서 새 동지를 둔 우리!

박호진 성도(디아스포라부)

사선을 넘어 이 땅에 새 동지를 마련한 우리 디아스포라부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제 곧 진행하게 될 여름수련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아스포라부 여름 수련회는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벗"이라는 주제하에 꿀맛 같은 서명철 목사님의 설교와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기도속에 2013년 7월 27일(토) 서울교회에서 진행 됩니다.



많은 우리 탈북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찬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기회에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여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내 미끄럼 주의



우리교회 지하 1,2,3층 주차장이 최근 시행한 방수막 코팅 작업으로 표면이 매우 미끄러운 경향이 있어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고인 빗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사람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도들은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찬양예배시간에

- 필사-15교구 임대희집사, 3교구 우종암집사
- 3독-3교구 김정순2권사
- 2독-6교구 강영순권사, 14교구 곽태수집사, 16교구 장양일집사
- 1독-4교구 임광우집사, 9교구 김진숙권사, 11교구 이영조집사, 10교구 임훈규 장로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4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과 Save N.K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통일대비 남북한 전문가 포럼 원탁회의에 참석한다.

■ 박노철 담임목사는 7월 22일(월)부터 8월 22일(목)까지 트리니티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위해 출국한다.

■ 득녀 : 6교구 최정운 성도 김혜림 성도

■ 임명 : 사무국 총무 직원으로 정성균집사가 임명되었다.

■ 주간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7.21) 한나전도회(7.28)

■ 금주의 식사 : 김익환 집사 최인 권사 가정 김정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편지왔어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이종운 원로목사님, 박노철 목사님, 성도여러분, 열악한 농촌 교회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무어라 말할수조차 할지 낯으로 난감한 마음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한국농촌교회의 현실이 낯으로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농지만 놓어줄100교회를 도와주신는 성도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힘을 내어 전도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연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농촌교회 후원금은 제가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교인들과 말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작은 행복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는 마을에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생신날 닭을 사가지고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그들을 웃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행복합니다.

경계가 어려운 이 때에 불교회도 어려우실텐데 이곳 오지에 있는 교회에까지 도움을 손길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서울교회에서 주시는 도움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곡교회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 2리)

백영주 목사 드림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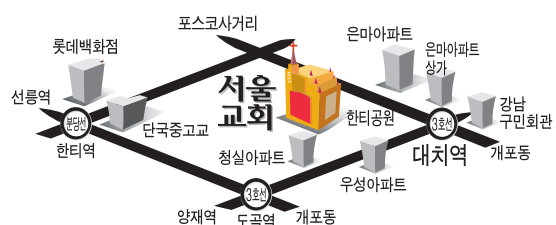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주에 있는 교육 1국과 2국 그리고 디아스포라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도록
2. 장마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되며 사랑하는 이와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도록
3. 다음세대들의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젊은이 예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